

본당 소식

2025년 4월 교황님 기도지향 : 신기술의 사용

신기술의 사용이 인간관계를 대체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우리 시대의 위기에 대처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기도는 천천히, 성가는 빠르게

♣ 부활 판공성사 안내

- 판공성사 기간: 4월 13일(주일)까지. 미사 시작 15분 전, 성전 고해소에서
- 파스카 성삼일과 부활 대축일(20일)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스카 성삼일 전례 안내

- 주님 만찬 성목요일: 4월 17일, 저녁 8시, 세족례
- 주님 수난 성금요일: 4월 18일, 저녁 8시, 십자가 경배 예식
-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미사: 4월 19일, 저녁 8시

♣ 모임/회의

- 사목회의: 4월 13일 (금일) 미사 후, 오라토리오

♣ 봉사자

- 계단, 화장실: 김산영 율리아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84.70€ • 교무금 400.00€
- 순례자 특별 봉헌금 160.00€

전례 성가

입당 : 10 (주를 찬미해)

봉헌 : 340 (봉헌)

성체 : 162 (성체 성혈 그 신비)

181 (신비로운 몸과 피)

파견 : 124 (은혜로운 회개의 때)

전례 봉사

이번 주일(4월 13일)	주님 만찬 성 목요일(4월 17일)
1독서: 김산영 율리아	1독서: 정지원 글라라
2독서: 윤상돈 알렉산드로	2독서: 윤상돈 알렉산드로
복 사: 박세아 루치아, 박동현 요한보스코 김사빈 엠마, 안테리 소화데레사	복 사: 김익찬 암브로시오, 정이한 다윗

2025년 4월 13일 (홍)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미사 전례

화답송



복음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복음 (루카 23,1-49)

○ 해설자 + 예수님 ● 다른 한 사람 ▣ 다른 몇몇 사람 ◎ 군중

그때에 백성의 원로단, 곧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 1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2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 “우리는 이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3 ○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오?”

○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4 ○ 빌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5 ○ 그러나 그들은 완강히 주장하였다.

◎ “이자는 갈릴래아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6 ○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래아 사람이냐고 묻더니,

7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8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9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10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11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12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13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14 그들에게 말하였다.

●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15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오.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16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 주겠소.”
 (17)·18 ○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 “그자는 없애고 바라빠를 풀어 주시오.”
 19 ○ 바라빠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였다.
 20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 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21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외쳤다.
 ◎ “그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22 ○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 주겠소.”
 ○ 그러자 23 백성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24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25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
 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26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27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28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29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배어 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 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30 그때에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
 다오.’ 할 것이다.
 31 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32 ○ 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33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34 그때에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셨다.
 +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35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빈정거렸다.
 ▣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36 ○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37 말하였다.
 ▣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38 ○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39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그분을 모독하였다.
 ●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40 ○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41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42 ○ 그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43 ○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셨다.
 +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44 ○ 낮 열두 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45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에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46 그리고 예수님께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고 잠깐 묵상한다.>
 47 ○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48 ○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49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래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굽어살피시어, 죽음을 무릅쓰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 선포를 위하여 언제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2.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총의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통찰의 성령을 보내 주시어,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로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게 하소서.
3.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주님, 진리와 생명을 찾아 교회에 온 예비 신자들을 지켜 주시어, 세례성사를 받고 참행복을 얻는 길로 씩씩하게 걸어 나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4.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친교의 주님, 그리스도의 수난 여정에 함께하는 저희 본당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어, 삶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위로하는 친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